

##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혜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장경호(인하대학교)\*\*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분석 대상의 특징
  - 1. 분석 대상
  - 2. 변인의 측정
  - 3. 분석 대상의 사교육 경험
- IV. 분석 모형 및 결과
  - 1. 분석 모형
  - 2.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A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 논술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술이 다수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방침이 없고, 대학에서도 이러한 고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전형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주 시민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사교육, 대학 전형, 로짓 분석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유익한 논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이 논문에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A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입시 전형 요소는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평가 기준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에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논술,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공인 어학 성적, 경시 대회 수상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가계의 경제적 능력이 대학 입시에서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민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학 전형 요소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 의존도 심화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 경우에 최종덕(2007)이 강조했던 학교 교육을 통한 시민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기는 어려워진다. 즉,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시민교육이 시민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 협동 등을 증대시키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전형 요소에 따른 사교육 유발 효과에 대한 본 연구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회교육의 목적인 올바른 시민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II. 선행 연구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요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중심으로 실태 또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교육이 교과목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삼(2009)은 영어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특성 요인을 식별하여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 지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명헌·김진영(2005)은 사교육이 수학 성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어 성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나타났다. 고영우(2010)는 사교육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성적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외국어 영역 성적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 입시 전형 요소와 관련한 연구로는 임규정(2011)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논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논술의 경우 사회 현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전동렬(2008)도 대학 입시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내용의 이공계 논술 문제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한 이수정(2010)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이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형 요소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거나 입시제도 개선 안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대학 입시 전형 요소와 사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대학 입시 전형에서 어떤 요소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시 전형 요소를 주요 설명 변수로 두고, 나머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통제 변수로 삼았다.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제 변수로 삼은 이유는 여러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성별 등 개인적 요인과 학교 만족도, 흥미 등 심리적 요인도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중혁·추헌택, 2011; 김진영, 2011; 정익중, 2011).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에서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실현 가능한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범위를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사교육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고영우(2010)는 사교육의 개념을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모든 수업을 통칭하는 의미로 보았다. 이 경우 방과 후 수업과 EBS 교재 활용은 사교육의 영역에 포함된다. 반면에 이명현·김진영(2005)은 사교육을 학원 수강, 개인 과외 등 공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현·김진영(2005)과 같이 사교육의 범위를 공교

육의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학원수강, 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습지, 유료 인터넷/TV 강의는 사교육에 포함시켰고, 방과 후 수업 및 EBS 교재 활용은 사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I장에서는 분석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VI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장은 결론을 도출한다.

### III. 분석 대상의 특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A대학에 입학한 2011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중 성별, 거주 지역, 사교육 경험 여부 설문에 응답한 2,4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대학은 수도권 4년제 남녀 공학 사립학교로 신입생 수는 약 3,900여명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한정된 이유는 설문에 응답한 신입생 중 90%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본인의 진학과 관심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전형 요소를 대학 입시 중에서 자신이 지원한 전형에서의 합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였다. 전형 요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이 세 가지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 내신을 꼽은 학생은 65.2%, 논술은 53.3%, 대학수학능력시험은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수험생이 대학 입시 합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형 요소로 내신, 논술,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꼽은 것으로 보아 대학 입시에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학교육협의회(2013)가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학 중 대부분이 수시전형에서 논술 고사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논술 반영 비율이 서울대학교의 경우 20~30%에 불과하지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교의 경우 50~70%에 달한다. 이는 학생들이 논술을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둘째,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 자기 소개서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11.3%,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형 요소로 수학 과학 경시대회, 공인 어학 성적, 예체능 특기를 꼽은 학생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소수의 특기자를 요구하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에 있어서 내신과 논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세 가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Ⅲ-1〉 대학 전형 요소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

(단위: 명, %)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체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형 요소	내신	1,581	65.2	842	34.8	2,423
	논술	1,291	53.3	1,132	46.7	2,423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66.9	803	33.1	2,423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274	11.3	2,149	88.7	2,423
	수학 과학 경시 대회	209	8.6	2,214	91.4	2,423
	공인 어학 성적	37	1.5	2,386	98.5	2,423
	면접	239	9.9	2,184	90.1	2,423
	예체능 특기	103	4.3	2,320	95.7	2,423
	비교과 활동	17	0.7	2,406	99.3	2,423

### 3. 분석 대상의 사교육 경험

분석 대상 학생들은 〈표 Ⅲ-2〉와 같이 논술 사교육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논술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의 절반이 고등학교 시절 논술 사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학 과학 경시 대회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경우 14.9%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경시 대회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Ⅲ-2〉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사교육 경험	논술	1,195	49.7	1,209	50.3	2,404
	수학 과학 경시 대회	352	14.9	2,015	85.1	2,367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205	8.7	2,151	91.3	2,356
	공인 어학 시험 준비	218	9.2	2,143	90.8	2,361
	예체능 실기	161	6.8	2,203	93.2	2,364
	면접	234	9.9	2,128	90.1	2,362
	기타	57	3.6	1,518	96.4	1,575

분석 대상 학생의 특징을 성별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Ⅲ-3>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63.1%로 그렇지 않은 학생 36.9%보다 많았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성별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71.5%로 남학생 57.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고등학교 소재지를 수도권<sup>1)</sup>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67.8%로 비수도권 52.1%보다 높았다.

〈표Ⅲ-3〉 성별 및 지역별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있음		사교육 경험 없음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검정 결과
성별	남학생	860	57.9	626	42.1	1,486	$\chi^2_{(1)}=45.9^{**}$
	여학생	670	71.5	267	28.5	937	
	전체	1,530	63.1	893	36.9	2,423	
지역	수도권	1,155	67.8	548	32.2	1,703	$\chi^2_{(1)}=53.9^{**}$
	비수도권	375	52.1	345	47.9	720	
	전체	1,530	63.1	893	36.9	2,423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비율이 높은 쪽에 표시함.

분석 대상 학생의 특징을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우선,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동렬(2008)이 지적한 대로 대학 입시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함.

한 가구 소득을 ‘400만 원 이하’ 와 ‘4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으로 구분하여 볼 때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가구 소득별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있음		사교육 경험 없음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검정 결과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90	50	90	50	180	$\chi^2_{(4)}=24.74^{**}$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12	60.2	338	39.8	850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492	67	242	33	734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194	61.8	120	38.2	314	
	800만 원 이상	167	69	75	31	242	
전체		1,455	62.7	865	37.3	2,320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비율이 높은 쪽에 표시함.

분석 대상 학생의 내신 성적별 사교육 경험을 보면 〈표Ⅲ-5〉와 같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Ⅲ-5〉 내신 성적별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있음		사교육 경험 없음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검정 결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	최상위권	241	61.6	150	38.4	391	$\chi^2_{(4)}=11.57^{**}$
	상위권	960	65	517	35	1,477	
	중위권	196	61.4	123	38.6	319	
	하위권	19	51.4	18	48.6	37	
	최하위권	2	22.2	7	77.8	9	
전체		1,418	63.5	815	36.5	2,233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비율이 높은 쪽에 표시함.

분석 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에 따른 사교육 경험 여부는 <표 III-6>과 같이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교 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과 만족하는 학생의 사교육 비율이 각각 58.3%와 60.3%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의 사교육 경험 66.2%와 66.4%에 비해 소폭 낮았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 수업 만족도별 사교육 경험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있음		사교육 경험 없음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검정 결과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	매우 만족	49	58.3	35	41.7	84	$\chi^2_{(4)} = 5.12$
	만족	340	60.3	224	39.7	564	
	보통	650	64	365	36	1,015	
	불만족	313	66.2	160	33.8	473	
	매우 불만족	116	64.4	64	35.6	180	
전체		1,468	63.4	848	36.6	2,316	

## IV. 분석 모형 및 결과

### 1. 분석 모형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sup>2)</sup>

$$\ln\left(\frac{p(y)}{1-p(y)}\right) = \alpha + \beta'x + \gamma'z + \epsilon$$

$$y = \begin{cases} 1 & \text{사교육을 받은 경우} \\ 0 & \text{그렇지 않은 경우} \end{cases}$$

위에서  $y$ 는 종속 변수로서 사교육 경험 여부를 나타내고,  $x$ 는 본 연구에서 초

2) 로짓 분석에 대한 식과 설명은 한경동·장경호(2011)를 참조할 수 있다.



점을 두고 있는 설명 변수 벡터로서 자신이 지원한 전형에서 내신, 논술,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수학 과학 분야 경시대회, 공인 어학 성적, 면접, 예체능 특기 개발, 비교과 활동 등이 중요한지 여부를 나타낸다. 한편,  $z$ 는 통제 변수로서 성별, 지역, 가구소득, 부 교육 수준, 모 교육 수준, 맞벌이 여부, 고등학교 평균 내신 성적 등 개인적 요인과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 EBS 교재 만족도, 방과 후 수업 만족도 등 심리적인 요인을 나타내고  $\epsilon$ 는 오차 항을 나타낸다.

로짓 회귀 분석 추정을 위해 앞서 제시한 2,423명 중 설명 변수에 모두 응답한 학생 1,48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속 변수인 사교육은 사교육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는 이항 변수이다. 설명 변수는 자신이 지원한 전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예를 들어 설명 변수 중 논술 항목은 자신이 지원한 전형에서 논술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측정하였다.

통제 변수 중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지역 변수는 고등학교 소재지를 의미하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그 이외의 지역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을 1, 비수도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200만 원 이하’를 1, ‘800만 원 이상’을 5로 하는 5점 척도로 숫자가 클수록 소득이 높다. 맞벌이 여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더미 변수이다. 부 교육 수준과 모 교육 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은 ‘중학교 졸업 이하’, 2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3은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4는 ‘대학교 졸업 이하’, 5는 ‘대학원 졸업 이상’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내신 성적은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학생의 고등학교 시절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가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역 코딩하여, 1은 ‘8~9등급’, 2는 ‘6~7등급’, 3은 ‘4~5등급’, 4는 ‘2~3등급’, 5는 ‘1등급’과 같이 성적이 높을수록 높은 척도를 부과하였다. 심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통제 변수에 공교육 만족도인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 EBS 교재 만족도, 방과 후 수업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용 변수로 삼았다. 이에 대한 설문은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은 1로, ‘매우 만족’을 5로 측정하였다.

## 2. 분석 결과

사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에 나타나 있다. 사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설

명 변수와 통제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은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과 적합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 회귀 분석 결과,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 요소는 내신, 논술,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예체능 특기개발이다. 내신의 경우 사교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신을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보다는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국어, 수학 등 교과목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 전형의 다양화로 내신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의 전형이 구분되면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여 공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예체능을 제외하면 논술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입시 전형 요소 중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이 논술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임규정(2011)이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논술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개별 교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논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논술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내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 자기 소개서와 포트폴리오도 또한 10% 유의수준에서 사교육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 과목 평균 내신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 과목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성낙일·홍성우(2008)가 밝힌 바와 같이 상위권 학생의 경우 더 나은 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권 학생들이 논술 전형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김희삼(200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신뢰하는 경우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BS 교재 만족도와 방과 후 수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설명 변수	종속 변수	사교육 경험
전형 요소	내신	-0.25*
	논술	0.64**
	대학수학능력시험	-0.19
	자기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0.37*
	수학, 과학 분야 경시 대회	0.12
	공인 어학 성적	0.81
	면접	-0.04
	예체능 특기 개발	30.13**
	비교과 활동	0.48
개인적 요인	성별	-0.42**
	지역	0.60**
	가구 소득	0.13**
	맞벌이 여부	0.03
	부 교육 수준	0.14**
	모 교육 수준	0.08
	전 과목 평균 내신	0.22**
심리적 요인 (공교육 만족도)	고등학교 수업 만족도	-0.12*
	EBS 교재 만족도	-0.04
	방과 후 수업 만족도	-0.06
상수항		-0.93
모형 설명력 검정		$\chi^2_{(19)} = 150.92$
Hosmer-Lemeshow검정		$\chi^2_{(8)} = 12.12$

주 1)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비율이 높은 쪽에 표시함.

2) 모형 설명력 검정은 ‘귀무가설:  $\beta_1 = \dots = \beta_n = 0$ ’에 대한 검정을 의미함.

3) Hosmer-Lemeshow 검정은 ‘귀무가설: 종속 변수의 관측 값 = 예측 값’에 대한 검정으로 로짓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말해줌.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대학 입시 전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맞추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체능 특기 전형을 제외하면 대학 입시 전형 요소 중 논술이 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규정(2011)이 지적한 대

로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논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공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데 기반이 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학년도 A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받은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 입시 전형 요소 중 어떤 부분이 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학 입시 전형 요소 중 논술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규정(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논술은 개별 교과에서 배우는 지식 하나만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 현장에서 개별 교과 수업을 통해 논술을 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대학에서 논술을 중요한 전형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방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논술의 경우 김미숙(2008)에 의해 조사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보다는 학원에서 교육받은 패턴대로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업 능력 측정을 위한 논술의 변별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민주 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가치로 여기며, 학교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조도근, 1997). 따라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 시민 교육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진(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논술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

요도 그만큼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환경은 자기 주도 학습력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정문성, 2011). 이는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신뢰를 비롯한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연구(은지용·설규주, 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교육 활성화는 시민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 상호 신뢰, 협동 증대를 위한 시민교육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종덕, 2007).

본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개별 교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실증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대학 입시 전형 요소 중 논술이 사교육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 전형 요소에 따른 사교육 유발 효과에 대한 본 연구는 공교육 정상화의 저해 요인을 밝혀 사회과 교육의 목적인 올바른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고영우(2010). “수능성적으로 바라본 사교육의 효과분석”, 『제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1-14.
- 김미숙(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 - 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 수학능력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혁·추헌택(2011). “대구지역 학부모의 교육인식, 교육기대와 자녀교육지원활동의 구조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9권 4호, pp. 1031-1063.
- 김진영(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2호, pp. 191-239.
- 김희삼(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2권 3호, pp. 27-59.
- 대학교육협의회(2013). 『2014학년도 대입정보 119』.
- 성낙일·홍성우(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0권 3호, pp. 183-212.
- 은지용·설규주(2011). “학업성취 우수 중학교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 사회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3권 3호, pp. 101-142.
- 이명헌·김진영(2005). “사교육(과외)의 학업 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421-435.
- 이수정(2010). “대입제도의 변화와 사교육”, 『제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1-15.
- 이영진(2009). “논술교육이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람어문교육』, 제39집, pp. 173-211.
- 임규정(2011). “고등학교 논술교과 지도 방향”, 『철학연구』, 제42집, pp. 93-115.
- 전동렬(2008). “대학 입시에 대한 성찰”, 『교육연구와 실천』, 제73권, pp. 21-58.
- 정문성(2011).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 환경이 자기 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수업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3권 1호, pp. 185-204.
- 정익중(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 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35권, pp. 73-98.
- 조도근(1997). “학교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논총』, 제2권, pp. 53-64.
- 최종덕(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제39권 4호, pp. 135-161.
- 한경동·장경호(201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p. 45-57.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013. Vol. 45(1). pp. 27~41.

## ABSTRACT

### The Effects of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on Private Education<sup>3)</sup>

Hye-Won Sh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ho Jang (Inha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on private education using the survey data for the freshmen who got into a university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in 2011. We use a logit analysis to find that essay tests have the greatest effect on the students' experiences on private education for the entrance examinations they prepared. We conjecture that the gap between the universities' requirement and the students' ability measured by the essay tests yields high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for the tests. This result raises the necessity to reform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to make foundation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rough lowering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s well as cultivating school education.

**Key Words:** Private 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 Logit Analysis

투고일자: 2013.01.31. 심사완료일자: 2013.03.16. 게재확정일자: 2013.03.16.

신혜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임. 경제교육과 사회과교육에 관심이 있음. bbory98@hanmail.net

장경호: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음. 시계열분석, 통화금융 및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음. kjang@inha.ac.kr

---

3)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